

## 한국교회 갱신의 과제와 루터 종교개혁의 정신

박 일 영\*

### 1. 들어가는 말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우리 역사에서 지대한 공헌을 하여 왔다. 천주교는 개신교보다 100여년 앞서 들어와 반(反)국가적인 종교로 오해를 받고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개신교는 한국의 개화기에 들어와 교육, 의료 사업 등을 통해 처음부터 호의적인 분위기 가운데서 선교를 시작하였다. 사실상 한국의 개화, 근대화의 역사는 기독교와는 떨어져 생각할 수가 없다. 특히 일제의 침략이 시작되면서 교회는 반일(反日) 애국심을 보존하고 키워 나가는 중요한 장이 되었고, 일제 시대 대부분의 애국자와 선각자들이 기독교인들이었음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당시 기독교인의 숫자는 전체 인구에 비해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 영향력과 역사에 대한 공헌은 지대한 것이었다.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 밑바닥을 튼튼히 다져온 한국 기독교는 해방이 되면서 폭발적인 성장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세계 교회 역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급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 조금 지난 지금, 전체 인구의 1/4이 기독교인이 되었으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포함해 각 교파별로 세계적 대형 교회가 한

---

\* 루터신학교 조교수(조직신학). 이 글은 1996년 10월 26일 녹번동 영산장로교회, 11월 2일 방배동 이수장로교회, 그리고 11월 4일, 국제루터교회에서 모인 루터교 청년연합 주최의 종교개혁 479주년 기념제에서 행한 특강의 내용이다.

국에 다 물려 있다. 외국의 목회자, 학자들이 한국의 교회 성장을 공부하기 위해 모여들 정도가 되었다.

그러나 요즘 들어 교회 안팎에서 교회 갱신을 부르짖는 소리가 높게 들리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교회 이대로 가선 안되겠다는 목소리이다. 물론 교회 갱신의 과제는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일찍부터 제기되었던 것이지만, 특히 요즘 들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 많은 이유를 열거할 수 있을 것이지만, 무엇보다 근래 들어 교회 성장이 전반적으로 둔화되었다는 사실에서 교회는 피부적으로 위기 의식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60년, 70년대까지 계속 되어 오던 폭발적 성장 비율이 80년, 90년대로 들어서면서 눈에 띄게 그 성장세가 줄어 들다가 요즘은 통계적으로 교인들이 더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기적적인 성장을 자랑해 오던 교회가 왜 더 이상 성장을 멈추었는가? 그 동안에도 한국 교회에 대한 비판의 소리, 혹은 교회 자체의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교회가 성장을 멈추었다는 사실에서 교회는 보다 진지하게 자신을 되돌아 보게 된 것이다.

그러면 한국 교회의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 진단들이 나오고 있다. 여러 여론수렴 기관들이 이에 대한 많은 조사를 내놓고 있다. 여기에서 그것들을 다 열거하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교회의 기업화와 상업화, 물질만능주의, 기복적 신앙, 교단분열, 목회자 및 평신도들의 자질 저하, 사회에 대한 무관심 등이 지적되고 있다. 아무튼 이러한 지적들 가운데 우리들이 인식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제 한국 교회는 이 사회로부터 존경과 영향력을 잃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2월에 조선일보가 여론 조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윤리적으로 가장 신

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밝혔다. 일등이 가톨릭 신부, 그 다음이 교수, 그 다음이 승려, 그 다음이 TV기자, 아나운서, 그 다음이 목사로 나왔다.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결과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무튼 기독교 성직자에 대한 인식이 어떻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예이다. 교회에 대한 인식, 일반 크리스천에 대한 인식도 모두 한심할 정도이다. 많은 대형 비리 사건들의 주역들이 크리스천들로 밝혀짐으로 크리스천들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신뢰의 대상이 되기는 커녕 오히려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인정과 신뢰와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문제요,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와 국가 장래를 생각할 때도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어느 역사에서나 종교가 존경을 받지 못하고, 지탄의 대상이 될 때 그 사회는 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에 교회의 갱신의 목소리는 당연한 것이다. 교회가 거듭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 모두의 과제이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의 갱신의 과제와 책임, 혹은 그 주체는 교회 지도자나 목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물론 성직자들이 져야 할 몫이 더 클지 모르지만 평신도들이 교회 갱신에 주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교회 갱신은 영적 개혁이어야 하며 어떤 개혁의 정책이나 혁명적 프로그램, 혹은 구호나 시위 가지고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크리스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고 성숙한 크리스천이 될 때, 그 개인의 크리스천의 삶을 통해 비로소 교회의 참된 갱신은 가능한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었어도 그 성은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면에서 중세 암흑 시대

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연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정신을 함께 살펴 보고자 한다.

## 2. 종교개혁의 정신

이 시간에 종교개혁의 역사나 사상을 자세히 다룰 수는 없다. 다만 오늘날의 교회 갱신의 과제를 생각하며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종교개혁 정신의 기본 원리들만 생각해 보고자 한다.

### 1) 칭의이신

루터 종교개혁의 정신, 혹은 원리를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고도 먼저 오는 것이 바로 칭의이신, 즉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교리이다. 우리 모두 이미 익숙히 알고 있는 것이지만, 때로 우리는 이 칭의이신의 중요성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 정신이야말로 말로 모든 시대를 넘어서, 특별히 한국 교회 현실에서도 가장 먼저 강조해야 할 중요한 정신이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공적을 쌓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루터 자신도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구원에 필요한 점수를 따기 위해 누구보다도 애쓰던 사람이었다. 수도원에 들어가 고행과 금욕을 철저히 지키는 생활을 계속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는 자신의 죄를 의식하게 되고, 그래서 괴로워하는 가운데, 집중적인 성서 연구를 통해 복음을 발견하였다. 즉 구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설 수 있는 것은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라는 성서의 중심 가르침을 재발견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만 새로운 것이 없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기본 교리이다. 그러나 이 단순한 정신이 종교개혁의 대 역사를 일으킨 것이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무엇보다도 이 칭의이신의 정신에 비추어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칭의이신의 반대 개념은 공로주의 혹은 공로사상이다. 공로주의는 선행을 하도록 격려하는 데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내 공로를 내세우게 되고, 내가 은혜 받고 축복 받는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이라는 나 중심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큰 은혜를 입었다 하더라도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되었다 할 때,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공로주의 속에서는 인간 자신이 중심에 자리잡게 될 수밖에 없으며, 이 공로주의를 배격하는 칭의이신은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아무리 훌륭하고 자랑할 만한 공로들로 가득차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 중심이 되어 있는 사회는 썩을 수밖에 없기에, 그 사회를 개혁하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로주의의 더 치명적인 약점은 사람들을 분리시킨다는 데 있다. 점수를 매기게 되면 석차가 생기게 마련이다. 잘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으로 분류가 되고, 결국 잘하는 사람들은 교만하게 되고, 못하는 사람들을 자신들과 분리시키고 만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미워하셨던 바리새주의이다. 바리새인들의 엄격한 생활은 예수님도 칭찬하셨다. 그러나 그 잘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자신들을 그들과 분리시켰던 그 공로주의를 예수님은 싫어 하였고 그 점 때문에 바리새인들 보다는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을 찾아 무조건적인 사랑과 죄 사함을 선포하신 것이다. 이런 면에서 공로주의는 언제나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다. 사람들을 분리하고, 정죄하는 가운데 참 공동체는 형성될 수 없는 것이다.

한국 교회 갱신의 첫 걸음은 칭의이신의 정신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나의 공로를 내 세우고 그래서 나 보다 못한 사람들을 구분하고 정죄하는 공로주의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언제나 죄인이고 모든 것은 은혜일 뿐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참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요즘 인간성 상실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인간성의 상실이란 바로 스스로 죄됨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언제나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정당성을 주장하는 자기 의 가운데서 인간은 비인간적이 되어가는 것이다. 사람이 망하는 것은 죄를 짓기 때문이 아니라 죄의식을 갖지 않고, 또 죄를 느끼더라도 회개하지 않는 완고함 때문이다. 공로주의는 결국 우리를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동시에 칭의이신 신앙은 “나는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다. 즉,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은 몇몇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신앙이다. 그런데 한심하게도 사람들은 스스로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하신 일, 그것은 너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몇몇한 사람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돈 없다고 죄인이 되고, 경쟁에서 낙오되었다고, 병이 들었다고, 때로는 학력이 부족하다고 스스로를 비하한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 들여진 용서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세리와 창녀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도 네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신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 죄사함, 그것을 믿고, 오직 그 분 안에서 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신앙,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요 이 칭의이신의 신앙 가운데서 우

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참된 공동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 자신을 용납할 수 있을 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초대 교회의 기적은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데 있다. 남자와 여자가, 심지어 주인과 노예까지도 한 형제가 되어서 서로를 용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다. 세상은 여러 기준을 가지고 공동체를 방해한다. 가진 사람들과 못 가진 사람들,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구분한다. 그러나 칭의이신에 근거한 공동체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분 안에서 모두 죄인이요 동시에 모두 용서함 받은 의인이라는 사실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세상적인 구분들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다.

루터는 어떤 개혁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다. 오직 이 칭의이신의 정신을 밝혔을 뿐인데, 그것이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살아있는 능력이 된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든 신앙도 이 칭의이신으로 돌아와야만 한다.

## 2) 오직 성서로만

둘째의 종교개혁 원리는 “오직 성서로만”이라는 원리이다. 앞의 칭의이신을 내용적 원리라고 하고 “오직 성서로만”의 원리를 형식적 원리라고 부르기도 한다.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성서를 개인에게로 돌려준 것이었다. 가톨릭 교회는 교회가, 교황이 성도들을 장악하고, 그래서 개인들이 성서를 접하는 것을 오히려 금하였다. 교인들이 성서를 알면 안되고 교황과 성직자들이 해석해 주는 대

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었다. 루터도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교회가 정한 모든 관습을 다 행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러다가 비텐베르크 대학의 성서학 교수가 되어 성서를 연구하다가 복음을 발견하고, 그리고는 성서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던 성서를 독일어로 번역하여 모든 사람들이 성서를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모든 교리와 신앙 생활의 규범을 오직 성서에서만 찾았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교리적으로 성서뿐 아니라 교회의 전통, 말하자면 교황이 정한 법규도 성서와 동일한 권위를 갖는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성서는 묻히고 교회가 성경을 지배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주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와 우리들 위에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말씀은 교회의 지배를 받고, 심지어 하나님과 그리스도까지도 인간적인 제도의 지배를 받게 되었던 것이었다. 루터가 전통을 거부하고 오직 성서만을 내세운 것은 인간적 전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하는 현실을 거부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위험성은 중세 교회뿐 아니라 언제나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교리적으로 성서만을 유일한 권위로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들의 현실 가운데서 말씀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성서가 우리를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맞게 성서를 해석하고, 내게 맞는 것만 취사 선택하여 말씀을 듣고자 하지는 않는가? 성서는 우리들의 제도, 우리들의 관습, 우리들의 가치관을 뒷받침해 주는 책이 아니다. 요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살펴볼 때 교회 생활의 관습만이 우리를 지배할 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깨어지는 일은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서는 언제나 우리들을 깨뜨리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요, “오직 성서로만”



의 정신은 나의 선입견, 나의 감정이 어떠한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내가 깨어져야 한다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다.

알게 모르게 우리 인간들은 여러 가지 편견을 만들어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내게 유리하도록 해석하는 습성이 있다. 신앙이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내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나의 해석과 판단이 아니라 오직 성서만이 규범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비록 내 뜻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겸손히 들으려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곧 신앙이다.

특히 한국 교회의 기도와 열성은 대단하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달라는 것으로, 내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만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은 발전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나님이 변화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깨어져야 하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갱신은 성서에서 출발해야 한다. 형식적으로만 성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모두 성서에 복종할 때, 우리의 모든 판단과 습성과 감정을 언제나 성서 앞에 굴복시킬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교회는 발전과 개혁이 가능한 것이다.

### 3) 십자가 신학

루터의 종교개혁을 말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십자가 신학이라는 것이다. 루터는 종교개혁의 신학을 영광의 신학과 대비하여 십자가 신학이라고 하였다. 십자가 신학은 간단히 설명하기는 어려운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칭의이신의 원리와 같은 것이며, 여기에서는 칭의이신에서 말하지 못

한 부분을 보충하는 면에서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요컨대 십자가 신학은 하나님은 인간적 영광,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이나 화려함 가운데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만 발견된다는 것이며, 이것은 역설적인 것이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다.

바울의 말대로 사람들은 지혜를 추구하고 기적을 추구하고 능력을 추구하면서, 그러한 지혜와 능력의 최고 정점이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그 분께 기도한다. 이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이런 상식과는 달리 십자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는 신앙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십자가란 무엇인가? 로마시대 가장 잔혹한 사형방법이었다. 그것도 노예들이나 피정복민에게만 집행하는 가장 비인간적인 사형틀이었다. 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자리, 우리가 제일 혐오하고,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이다.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영광의 자리, 능력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그 십자가 가운데서 발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직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것인데, 때문에 루터는 이 하나님을 감추어진 하나님이라고 하였다. 그렇다. 하나님은 언제나 감추어져 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지혜로는 발견할 수 없다. 오직 신앙의 눈에만 발견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과는 어긋나게 십자가에 계시기 때문이다.

요즘 십자가는 아름다운 것, 능력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이렇게 십자가를 관념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물론 십자가는 먼저 우리를 위한 하나님

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그래서 그것은 사랑과 은혜의 상징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십자가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리는 우리의 십자가이다. 우리의 죄됨, 연약함,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창피함, 바로 그 자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임을 알아야 한다. 루터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먼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신다”고 했고, 또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 시련과 고통을 주신다고 했다. 의로운 사람으로서,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내려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십자가 신학은 칭의이신의 진리를 반복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신다는 사실을 보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브라함의 예를 생각해 보자. 그가 고향에서 편히 쉴 때, 하나님은 그에게 무조건 떠나라고 명령하셨다. 어디로? 아무것도 없는 사막 광야로, 의지할 것도 없고 위험만 도사리는 이국 땅으로 떠나라고 하셨다. 그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모세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은 그가 애굽의 왕자일 때 만나지 않으셨다. 미디안 광야에서 외로운 양치기로 있을 때, 80 노인이 되어 모든 것을 체념하고 사는 무명의 목자일 때, 그를 만나 주셨다.

아직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광의 자리, 화려한 자리, 성공의 자리에서 찾으려고 한다. 물론 하나님은 열심히 사는 삶에 대한 보상으로 성공과 재물도 주신다. 그러나 그러한 성공과 재물, 영광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 그

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삶이 성공하고 편안한 삶이라면, 그 속에 십자가가 없는 삶이라면, 조심해야 한다. 만일 여러분이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 가운데 있다면, 그 속에서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신앙의 눈인 것이다.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십자가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시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은 벼락을 치고, 물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릴 수 있었던 능력이었다.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가? 바로 십자가에 자기를 매어달 수 있는 능력이지요, 자기 희생의 능력이지요, 사랑의 능력이다. 이것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내 가정과 내 교회와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인 것이다.

요즘의 한국교회는 영광의 신학의 모습을 하고 있다. 십자가 신학으로 돌아서야 한다. 영광의 자리, 화려한 자리, 지혜와 능력의 자리에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화려함과 영광과 지혜와 풍요함이 축복이 아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선택하셨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은 일부러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선택하셨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기 위해서이다. 인간적 지혜와 상식, 그것에 비추어 볼 때 십자가는 언제나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비추어 볼 때, 이 세상의 영광과 능력과 지혜는 바로 멸망에 이르는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즘 한국 교회는 과

연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 4) 만인사제직

종교개혁 정신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은 만인사제직이라는 개념이다. 믿는 사람, 세례 받은 사람은 누구나 사제라는 말이다. 중세 교회는 교황의 교회였고 성직자들의 교회였다. 그러나 루터의 종교개혁은 모든 크리스천들이 다 사제요 성직자라고 강조한다. 이 사상은 먼저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는, 그래서 성직자가 평신도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을 거부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한 공동체이다. 그 공동체에는 어떠한 계급도 있을 수 없다.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여야 한다. 한국교회가 성직자들의 위상을 강조하고 평신도들과의 구분을 강조하는 것은 성서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요, 많은 교회의 비리와 악습이 여기에서 발생한다. 그렇다고 성직자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다. 루터는 성직자의 소명과 직무를 상당히 중요시 여겼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질서를 위한 것이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계급적으로 성직자를 평신도 위에 놓은 것이 아니다. 때로 독재가 효과적이라고 생각될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이 말이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복종해야 한다. 성직자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밑에 있고, 그 분께 복종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 특히 성직이라는 계급이 강조될 때 오직 그리스도만을 중보자로 하여 맺어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직접적인 관계는 깨어지고 만다. 성직은 봉사의 기능이지 중보자 계급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만인 사제직은 신앙인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에 성직자와 평신도가 나눌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 정신은 평신

도 개개인들의 가치를 드높이고, 때문에 개개인이 교회 안에서, 또 이 사회 속에서 갖는 개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은 성직자들보다 평신도들 스스로 즐겨 하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성직자는 복을 주는 사람, 평신도는 성직자들을 통해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수동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고자 한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에 머무르는 한 절대로 그 평신도의 신앙과 삶은 발전할 수 없다. 이런 평신도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평신도들은 목사를 우습게 생각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루터는 성직의 개념을 강조하고 질서를 위해 엄격하게 교육 받고, 훈련 받고, 정식으로 소명을 받은 사람들을 존중할 것을 요구하였다. 루터의 종교개혁 후 열광주의자들이 나타나 자기들은 모두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질서를 파괴하였다. 성령은 때로 직접적으로 활동하시지만, 성령의 역사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바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과 예배와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요, 특별히 성직을 위해 따로 세우고 훈련한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심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구원은 성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지만, 성직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존중해야 한다.

한국 교회의 갱신을 위해 만인 사제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갖는 직접적인 책임의식, 이것이 여러분을 참 크리스천으로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은 복 받기 위해 부름 받은 것이 아니요, 할 일이 있기에 부름을 받은 것이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복을 비는 사람들로 머물고 결코 소명 받은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는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교회만 크게 만들기 위해 오히려 개개인 평신도들이 어린이 상태로 머물러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장래, 그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 3. 마감하는 말

이야기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 덕목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

1)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언제나 인간, 더구나 이기적이고 죄된 인간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진정 오늘날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회는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개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자기가 개혁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은 언제나 사회를 오히려 파괴한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개혁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개혁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해서는 안된다. 이 세상 어떤 기준으로든 우리를 스스로 낮추지 말고, 과거의 어떠한 부끄러움으로도 우리의 생명을 움아매지 않게 해야 한다. 참된 개혁은 자유를 얻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 죄의 굴레, 사회적 기준들로 이루어진 굴레에 얽매어 있는 사람들에게서 개혁을 기대할 수는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바로 이 단순한 신앙고백이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은 것이다.

루터에게서 위대했던 것은 그의 개혁적 행동이 아니라 바로 이 신앙고백이었다.

3) 무엇보다도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한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삶 위에 올려 놓아야 한다. 자기의 생각과 뜻을 관철하려는 태도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 가짐을 버리고, 그리고 쓰면 뵈고 달면 삼키는 태도로 말씀을 취급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말씀 아래서 나 자신을 깨뜨려야 한다.

4) 참된 은혜와 축복을 십자가에서 찾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 물질적인 축복, 세상적인 축복은 한계가 있다. 아니 그것은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고 멸망케 만드는 것이다. 그러한 세상적 가치관에 코웃음 칠 수 있는, 보다 높은 영적 안목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이 점에 있어서 교회는 세상과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

5) 어떤 종류의 배타주의도 버리고 개방성을 가져야 한다. 한국 교회의 분열상은 교회 내의 분열과 개개인들의 분열적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가장 미워하시고 거부하셨던 바리새주의의 위험성을 늘 경계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납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

6)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고 방식을 버리고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육적인 본능이나 욕망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알팍한 자존심만 세우다가 아무런 가치 없이 무덤에 들어갈 사람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작게는 여러분 가정을 위해, 이 교회를 위해, 또 이 사회와



이 국가를 위해 여러분에게 원대한 뜻을 가지고 계시다. 자기 권리 주장에만 능한 사람이 아니라 이 책임의식,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는 이 소명의식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마는,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일을 하신 것을 성서 전체에서 읽을 수 있다. 여러분은 결코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참 크리스천, 참 그리스도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선교사, 성직자가 되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결국 한국교회의 갱신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야 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책임의식을 느끼고, 나 스스로 올바른 한 사람의 크리스천이 되고자 할 때, 바로 우리 자신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